

민주당 조순형 당선

7·26 재보선 한나라 3곳 승리...열린우리 全敗

투표율 24.6%...사상 최저

7·26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최대 접전지였던 서울 성북을에서 민주당 조순형 후보가 당선돼 6선 고지에 올랐다. 이로써 민주당은 수도권 교도부를 확보해 '지역정당'에서 탈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향후 정계개편에서도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됐다.

한나라당은 송파갑 등 3곳에서 승리했고, 열린우리당은 단 한 석도 견지 못한 채 전폐했다.

〈관련기사 3면〉

전국 4곳에서 실시된 이날 선거 최종 결과 민주당 조순형 후보가 2만3천382표(44.3%)를 얻어 2만1천 149표(40.1%)에 머문 한나라당 최수영 후보에 2천23표차로 승리했다.

서울 송파갑에서는 한나라당 맹영규 후보가 2만824표(76.8%)를 얻어 열린우리당 정기영 후보에 1만4천 535표차로 압승했고, 경기 부천소사에서는 한나라당 차명진 후보가 1만8천549표(48.0%)를 획득, 우리당 김



〈조순형 당선자〉

만수 후보(1만1천712표)를 6천837표 차로 제쳤다.

경남 마산갑에서는 한나라당 이주영 후보가 2만550표(47.5%)로 우리당 김성진 후보(1만630표)를 9천920표차로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번 선거 결과 정당별 원내의석 수는 우리당 142석, 한나라당 126석,

민주당 12석, 민주노동당 9석, 국민중심당 5석, 무소속 5석으로 재편됐다.

민주당은 성북을 승리로 17대 국회 들어 첫 수도권 교도부를 마련, 향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확실한 이니셔티브를 거머쥘 수 있게 됐고, '대통령 탄핵 주역'이었던 조 후보는 사실상 '면죄부'를 받게 됐다. 그러면 열린우리당은 여당의 전통적 강세지역이었던 성북을을 민주당에 내줌으로써 큰 타격을 입게 됐고, 향후 정계개편 과정에서도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됐다.

당초 4곳을 석권할 것으로 기대했던 한나라당은 '수해골프' '호남비하 발언' 등의 여파로 성북을을 민주당에 빼앗겨 지도부 책임론 등으로 상당한 감동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24.6%에 그쳐 사상 최저치로 잠정 집계됐다. 이같은 투표율은 역대 국회 의원 재·보선의 최저 투표율이던 2003년 4·24 재·보선 때의 26.0%를 1.4% 포인트 밑도는 수치다.

〈정현기자 who@kwangju.co.kr〉

전남 한집 2.7명...핵가족도 붕괴

전국 2.88명...사상 첫 3명 밀돌아

전남지역 1가구당 평균 가족 수가 2.7명으로 줄어든 것을 비롯, 우리나라 1가구당 가족 구성원이 사상 처음으로 핵가족의 기본 가족

수인 3명 이하로 떨어졌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는 4천727만 9천명이고 종가구 수는 1천598만 8천호로 가구당 평균 가족 수는 2.88명으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5면〉

이는 지난 2000년보다 0.24명 감소한 것으로 '나홀로' 가구의 증가, 전통 대가족 해체 등의 사회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광주·전남의 1가구당 가족 수는 각각 3.08명, 2.7명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46만90가구로 2000년 40만8천527가구보다 12.6%(5만1천 563가구) 늘어나면서 가족 수가 0.22명 감소했다.

전남은 66만6천319가구로 2000년 66만4천287가구보다 0.3%(2천32가구)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인구가 8.7%(17만 4천468명) 감소하면서 가족 수가 0.3명 줄었다.

광주·전남은 주거형태에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광주는 전체 가구 가운데 아파트가 70.9%(26만9천호)를 차지하면서 17%(4만호) 증가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만원·천원권 새 지폐



한국은행은 새 1만원 지폐와 새 1천원 지폐(사진)를 내년 1월22일 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새 1만원권은 세종대왕 초상을 그대로 유지하되 보조조각은 '과학'을 주제로 변경했다. 1천원권은 뒷면에 경계 정선의 계상정거도(溪上靜居圖)를 그려 '예술'을 강조했다. 〈정필수기자 bungy〉



어린이 충효교실

방학을 맞아 훈장 할아버지로부터 한문을 배우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시원 진지하다. 담당 고서면 청평학교에서 주최하는 이 충효교실은 25일부터 시작해 다음달 31일까지 고서농협 강당에서 실시된다.

"DJ 납치는 중앙정보부 소행"

국정원 과거사위 "박정희 지시 부정할 근거없다"...정부 개입 첫 시인

한국 정부가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납치사건에 대한 정부측의 개입을 조만간 공식 인정한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6일 서울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과거사위·오종일 위원장)가 지난 1973년 8월 도쿄에서 발생한 DJ 납치사건이 당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에 의한 조직적 범행이었다는 결론을 담은 100쪽 분량의 보고서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DJ 납치사건에 정부 개입을 인정하기는 처음으

로, 국가정보원이 조만간 이를 공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관계자 50여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직접 범행을 지시하고 20여명이 역할을 분담, 실행했다고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은 복수의 당시 중앙정보부 요원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신문은 납치현장에서 지문이 발견됐던 주일 한국사관의 김동운 당시 서기관은 지금 한국에서 건재하며, 규명위원회에 자신이 범행에 개입했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여부에 대해 보고서는 "부정할 근거는 없다"고 결론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이후락 전 부장이 고령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조사 받기를 거부한 덕에 명확한 증거는 발견되

지 않았으며 그의 개입 및 박 대통령의 지시 여부는 최종적으로는 확인되지 못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조사위 관계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적어도 납치 후의 경과는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부 증언자는 "납치한 호텔에서 (DJ를) 죽이려 했다"고 증언했으나 이를 부인하는 증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납치사건 전체의 흐름 속에서 DJ를 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지시 자체에 '살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국정원 과거사위는 내주중 DJ 납치사건을 포함, 19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과 1987년 KAL기 폭파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ARF '8~9자 회담' 가능성

中, 北 뺀 5자회동 반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가하고 있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은 '미사일 사태' 등을 논의하기 위해 ARF 다른 회원국들도 참여하는 '8~9자 회동'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회담에 정통한 정부 고위 당국자가 26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재로서 5자나 6자 회동의 성사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중국과 북한의 입장은 고려한다"면 8자나 9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5·6면〉

특히 그는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5자는 불가능하다"면서 "6자 또는 5자가 아니면 북한의 부담도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6자회담의 경우, 북한이 방코델타 아시아(BDA)에 대한 제재를 풀리기 전에는 복귀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성사되기 어렵고 북한을

뺀 5자회동의 경우 북한을 소외시킴으로써 6자회담 프로세스까지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중국 측의 반대로 이뤄지기 힘든 실정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ARF 회의가 열리는 28일 회담장인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KLCC)에서 6자회담 참가국과 ARF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그리고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지원국인 호주와 캐나다 등이 참가하는 다자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참가할 경우 전체적으로 9자가 될 수도 있고, 참가하지 않으면 8자가 될 수도 있는 유동적인 상황"이라면서 "중국은 5자가 아니라면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ARF 회의일정이 본격화되며 전 뉴욕의 북미 채널을 통해 북한측에 6자회동에 참석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KUKJI 국제약품

www.kukjipharm.co.kr



사람이 자연을 사랑한다지만...
오히려 자연은 존재하는 것 만으로도
사람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정성스레 쌓아온 틈틈 앞에 작은 소원을 말해봅니다.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소원을 비는 정성만으로도 사랑을 주는 것.

그것이 국제약품이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양파 및 반려약



• 카밀레 칸디드

국내·국외 칸디드 알레르기 치료제
국내·국외 칸디드 알레르기 치료제
국내·국외 칸디드 알레르기 치료제



• 신도풀 칸디드

국내·국외 칸디드 알레르기 치료제
국내·국외 칸디드 알레르기 치료제
국내·국외 칸디드 알레르기 치료제



• 디아路演 칸디드

국내·국외 칸디드 알레르기 치료제
국내·국외 칸디드 알레르기 치료제
국내·국외 칸디드 알레르기 치료제